

대전·충남지역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왕미 · 한장일¹⁾ · 김성애^{1)†}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¹⁾충남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Factors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of Dietitians(Nutrition Teachers) of School Foodservice in Daejeon/Chungnam Province

Wang-Mi Shin, Jang-Il Han¹⁾, Seong-Ai Kim^{1)†}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¹⁾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o improve job satisfaction for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by identifying influencing factors in Daejeon and Chungnam Province, South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from selected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the area. This survey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status of their job, job satisfaction, work satisfaction and work performance. In this study we found current state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their job according to frequency analysis and the level of work satisfaction, work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OVA and Duncan-test were also conducted in order to searching for tendency of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status of their job. Pearson's correlation was carried out in order to find cor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Also, factors, which influence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were drawn. We describe the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between irregular dietitians and nutrition teachers as well. Besides we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dietitians' (nutrition teachers') work environment to raise their job satisfaction through this study.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4(6) : 798~806, 2009)

KEY WORD : job satisfaction · work performance · work satisfaction ·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서 론

2003년 7월 25일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령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시정하고, 아동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여 영양교사직을 신설하였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두어 학교급식 운영을 시행하도록 하였다(Lee 2002).

학교급식의 역할이 강조, 증대됨에 따라 급식의 생산관리에서 영양교육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사는 직업윤리에 사명감이 있는 전문인으로 급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영양사가 좋은 직무 환경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직무에 만족할 때, 작업능률이 향상되고 학교급식의 질도 향상된다(Park 1999). 즉 영양사의 질적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면 급식 생산성을 통한 효율화가 극대화되며 높은 직무공지를 갖게 되어 이에 따라 영양사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된다. 이러한 효과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급식의 제공으로 연결되므로 영양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Jeong 2007).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Yang & Ham 1993; Han 등 1999; Park 1999; Shin 등 1999; Ko 2002; Lee 2002; Jang & Kim 2003; Choo 등 2005; Hwang 2005; Kim 2006; Cha & Seo 2006; Jeong 2007)는 학교급식의 확대와 더불어

접수일: 2009년 11월 2일 접수

채택일: 2009년 12월 11일 채택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2008 grants from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eongAi Kim, Department of Food &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20 Gung-dong, Yuseong-gu, Daejeon 305-764, Korea.

Tel: (042) 821-6836, Fax: (042) 821-8447

E-mail: sakim@cnu.ac.kr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편이다. 특히 2003년 학교급식 영양사가 제도적으로 영양교사화 된 후 수행된 학교급식소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기도(Lee 2007; Lee 2008), 광주·전남(Park 2008), 전북(An 2008), 서울(Hwang 2009) 지역에서 학교급식소 영양교사의 직무수행도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충남지역의 학교급식소의 영양교사와 일반 영양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도(Work performance), 업무만족도(Work satisfaction) 및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를 조사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학교 급식소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학교급식소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교급식의 질적 양적 향상에 기여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학교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전·충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이 지역의 영양(교)사 21명에게 e-mail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본 조사는 2009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같은 지역의 영양(교)사 63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438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23부를 제외한 415부(65.5%)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에 이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2006; Lee 2007; Park 2008)의 설문내용을 참조하여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α 값은 α 값이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신뢰도를, 0.6 이상이면 수용할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Jeong 2007) 본 연구에서는 30개 항목 중 26개 항목에서 0.7 이상의 α 값을, 4개 항목에서 0.6 이상의 α 값을 얻었으며, α 값이 0.6 이상이었던 4개 항목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설문내용을 완성한 후 본 설문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일반사항, 근무현황, 업무수행도 및 업무만족도, 직무만족도에 관

련된 사항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사항은 조사대상자의 개인적인 사항들에 관한 6문항, 근무현황은 대상자의 근무지에 관한 장소, 형태, 현재 상태 등에 관한 11문항이다. 업무수행도(Work performance)는 세부 업무의 수행 정도를 의미하며 크게 영양지도 활동 영역(식생활지도, 영양교육, 영양상담)과 급식관리 영역(식단관리, 식재료 구매 및 보관관리, 조리작업 및 배식관리, 퇴식 및 식기관리, 급식시설 및 기기관리, 위생관리, 인력관리, 급식경영, 기타 업무)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만족도(Work satisfaction)는 각 업무별 만족도를 의미하며 업무수행도와 동일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는 인간관계, 직무, 근무환경, 보상, 행정체제, 인정지위의 6가지 영역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응답 방법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업무수행도(1: 전혀 수행하지 않음-5: 항상 수행), 업무만족도(1: 전혀 만족하지 않음-5: 매우 만족), 직무만족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를 평가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SPSS 14.0K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과 근무현황에 대해 알아보려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수행도, 업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수준을 조사하고자 기술통계량을 보았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근무현황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독립표본 t-test 및 일원 배치분산분석(ANOVA) 및 사후검정(Duncan's test)을 실시하였다. 업무수행도, 업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의 상관 정도를 알아보려고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있어서 일반사항(연령, 결혼 여부, 학력, 경력, 급여, 근무시간), 근무현황(근무지역, 근무처, 고용형태, 급식형태, 급식 학생 수, 조리종사원 수), 업무수행도 및 업무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였는데 변수가 2개인 항목의 경우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즉 결혼 여부에서 미혼을 0, 기혼을 1로, 근무지역에서 충남을 0, 대전을 1로,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를 0, 영양교사를 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조사에 응답한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36~40세가 174명(41.9%)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여부는 기혼이 313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chool foodservice dietitian in Daejeon/Chungnam province

Characteristics	N (%)
Age	
≤ 25	14 (3.4)
26 – 30	54 (13.0)
31 – 35	57 (13.7)
36 – 40	174 (41.9)
≥ 41	116 (28.0)
Marital status	
Single	102 (24.6)
Married	313 (75.4)
Education	
Technical college	26 (6.3)
Technical college+Bachelor's degree	81 (19.5)
Bachelor's degree	133 (32.0)
Graduate school or above	175 (42.2)
Years of work experience	
< 1	29 (7.0)
1 – 5	81 (19.5)
6 – 10	100 (24.1)
11 – 15	143 (34.5)
≥ 16	62 (14.9)
Annual salary (1,000 won)	
< 1,500	14 (3.4)
1,500 – 2,000	127 (30.6)
2,000 – 2,500	45 (10.8)
2,500 – 3,000	28 (6.7)
≥ 3,000	201 (48.4)
Working hours	
< 44 hrs	125 (30.1)
44 hrs	144 (34.7)
45 – 50 hrs	97 (23.4)
≥ 50 hrs	49 (11.8)
Total	415 (100.0)

(75.4%), 미혼이 102명(24.6%)이었으며 최종 학력은 대학원(재학)이상이 175명(42.2%)이었다. 근무경력은 11~15년이 143명(34.5%)이고, 급여는 3000만원 이상이 201명(48.4%)이었으며, 근무시간은 44시간이 144명(34.7%)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2. 조사대상자의 근무현황

조사대상자의 근무현황은 Table 2와 같다. 근무지역은 대전이 129명(31.1%), 충남이 286명(68.9%)이었으며, 근무처는 초등학교가 261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선호하는 근무처 또한 초등학교가 272명(65.5%)으로 많았다. 고용형태는 영양교사가 223명(53.7%), 비정규직 영양사가 192명(46.3%)으로 나타났고 급식운영형태는 직영만 조사되었다. 급식형태는 단독조리교가 320명(77.1%)이었으며, 평균 1일 제공 급식 수는 1식이 350명(84.3%)으로 가장

Table 2. Status of school foodservice dietitian in Daejeon/Chungnam province

Characteristics	N (%)
Working areas	
Daejeon	129 (31.1)
Chungnam	286 (68.9)
Working school type	
Primary school	261 (62.9)
Middle school	85 (20.5)
High school	69 (16.6)
Desirable school to work	
Elementary school	272 (65.5)
Middle school	131 (31.6)
High school	12 (2.9)
Employment type	
Nutrition teachers	223 (53.7)
Irregular dietitians	192 (46.3)
Management type	
Direct management	415 (100.0)
Consignment management	0 (0.0)
Cooking system	
Individual cooking	320 (77.1)
Joint cooking	78 (18.8)
Joint management	17 (4.1)
Number of meals per day	
Lunch	350 (84.3)
Lunch + Dinner	31 (7.5)
Breakfast + Lunch + Dinner	34 (8.2)
Number of meals served	
≤ 400	166 (40.0)
401 – 800	103 (24.8)
801 – 1200	79 (19.0)
1201 – 1600	44 (10.6)
≥ 1601	23 (5.5)
Dinning area	
Classroom	60 (14.5)
Cafeteria	347 (83.6)
Classroom + Cafeteria	8 (1.9)
Number of cooks	
1 – 5	229 (55.2)
6 – 10	154 (37.1)
≥ 11	32 (7.7)
Years of meal service	
< 1	9 (2.2)
1 – 5	74 (17.8)
6 – 10	118 (28.4)
≥ 10	214 (51.6)
Total	415 (100.0)

많았다. 급식 학생 수는 400명 이하가 166명(40%), 401~800명이 103명(24.8%)으로 많았고, 배식장소는 식당이 347명(83.6%)으로 대부분 식당배식을 하고 있었다. 종사원 수는 1~5명 이하가 229명(55.2%), 학교의 급식 년 수는 10년 이상이 214명(51.6%)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3. 조사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업무수행도 및 업무만족도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 업무수행도 및 업무만족도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직무만족도 평균은 2.99 ± 0.49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고, 영양지도 활동 영역은 업무수행도가 2.94 ± 0.74로 보통이고, 업무만족도는 2.76 ± 0.72으로 업무수행도에 비해 낮았다. 급식관리 영역은 업무수행도가 4.33 ± 0.55으로 높았으나, 업무만족도는 3.77 ± 0.65로 업무수행도에 비해 낮았다. 업무수행도가 높으면 업무만족도도 높았으나 업무수행도에 비해 업무만족

도 수준이 낮았으므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Table 3).

4. 영양(교)사의 일반사항에 따른 직무만족도

영양(교)사의 일반사항에 따른 직무만족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41세 이상(3.10), 36~40세(3.05), 25세 이하(2.92), 31~35세(2.89), 26~30세(2.72) 순으로 25세 이하를 제외한 항목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p < 0.001). 결혼 여

Table 3. Job satisfaction, work performance and work satisfaction of school foodservice dietitian

	Items	N	Min	Max	Mean	SD
Job satisfaction	Total satisfaction	415	1.36	4.56	2.99	0.49
Work performance	Nutritional guidance	415	1.00	5.00	2.94	0.74
	School foodservice	415	1.41	5.00	4.33	0.55
Work satisfaction	Nutritional guidance	415	1.00	5.00	2.76	0.72
	School foodservice	415	1.06	5.00	3.77	0.65

Table 4.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Items	N	Mean ± SD
Age (year)	≤ 25	14	2.92 ± 0.61 ^{ab1)}
	26 – 30	54	2.72 ± 0.45 ^a
	31 – 35	57	2.89 ± 0.52 ^{ab}
	36 – 40	174	3.05 ± 0.45 ^b
	≥ 41	116	3.10 ± 0.49 ^b
		F-value (p-value)	
Marital status	Single	102	2.85 ± 0.51
	Married	313	3.04 ± 0.48
		F-value (p-value)	
Education	Technical college	26	2.94 ± 0.42 ^{ab}
	Technical college + Bachelor's degree	81	3.05 ± 0.49 ^{ab}
	Bachelor's degree	133	3.09 ± 0.49 ^b
	Graduate school or above	175	2.90 ± 0.49 ^a
		F-value (p-value)	
Work experience (year)	< 1	29	2.98 ± 0.48 ^{bc}
	1 – 5	81	2.76 ± 0.44 ^a
	6 – 10	100	2.83 ± 0.52 ^{ab}
	11 – 15	143	3.12 ± 0.41 ^c
	≥ 16	62	3.29 ± 0.48 ^a
		F-value (p-value)	
Annual salary (1,000 won)	< 1,500	14	2.53 ± 0.40 ^a
	1,500 – 2,000	127	2.78 ± 0.42 ^b
	2,000 – 2,500	45	2.85 ± 0.53 ^b
	2,500 – 3,000	28	3.20 ± 0.54 ^c
	≥ 3,000	201	3.16 ± 0.45 ^c
		F-value (p-value)	
Working hours	< 44 hrs	125	2.92 ± 0.48
	44 hrs	144	3.02 ± 0.50
	45 – 50 hrs	97	3.02 ± 0.49
	≥ 50 hrs	49	3.05 ± 0.50
		F-value (p-value)	

1) The alphabets mea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comparison: a < b < c < d

2) *: p < 0.05, **: p < 0.01, ***: p < 0.001

부에 따라서는 미혼이 평균 2.85, 기혼이 3.04로 기혼자의 직무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01$). 최종 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4년제 대학 졸업(3.09), 전문대 + 학사 편입(3.05), 전문대 졸(2.94)의 순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대학원(재학)이상(2.90)은 오히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p < 0.01$).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16년 이상(3.29), 11~15년(3.12), 1년 미만(2.98), 6~10년(2.83), 1~5년(2.76) 순이었다($p < 0.001$). 급여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2500~3000만원 미만이 평균 3.20으로 가장 높았고, 1500만원 미만이 평균 2.53으로 가장 낮았다($p < 0.001$). 이것으로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근무시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50시간 이상(3.05), 45~50시간 미만(3.02), 44시간(3.02), 44시간 미만(2.92)의 순이었다(Table 4).

5. 영양(교)사의 근무현황에 따른 직무만족도

영양(교)사의 근무현황에 따른 직무만족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근무지역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전이 평균 3.01로 충남(2.99)보다 조금 더 높았다. 근무처에 따라서는 초등학교(3.05), 고등학교(2.98), 중학교(2.84) 순으로 높았다($p < 0.01$).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영양교사와 비정규직 영양사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영양교사는 평균 3.14로 비정규직 영양사(2.82)보다 직무만족도가 높았다($p < 0.001$). 급식형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공동관리교, 공동조리교, 단독조리교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급식 학생 수에 따라서는 1601명 이상(3.27), 401~800명(3.02), 400명 이하(2.99), 1201~1600명(2.97), 801~1200명(2.91) 순으로 높았다($p < 0.05$). 종사원 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종사원 수가 11명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6~10명일 때 가장 낮았다(Table 5).

6. 직무만족도와 업무수행도, 업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직무만족도와 업무수행도에서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직무만족도

Table 5.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status

Status	Items	N	Mean ± SD
Working areas	Daejeon	129	3.01 ± 0.52
	Chungnam	286	2.99 ± 0.48
	t-value (p-value)		0.33 (0.7411)
Working school	Primary school	261	3.05 ± 0.46 ^{b1)}
	Middle school	85	2.84 ± 0.52 ^a
	High school	69	2.98 ± 0.54 ^b
	F-value (p-value)		6.20 (0.0022)** ²⁾
Employment type	Nutrition teachers	223	3.14 ± 0.47
	Irregular dietitians	192	2.82 ± 0.47
	t-value (p-value)		-6.87 (0.0000)***
Cooking form	Individual cooking	320	2.97 ± 0.50
	Joint cooking	78	3.06 ± 0.49
	Joint management	17	3.20 ± 0.36
	F-value (p-value)		2.71 (0.0678)
Number of meals served	≤ 400	166	2.99 ± 0.46 ^{ab}
	401 - 800	103	3.02 ± 0.54 ^a
	801 - 1200	79	2.91 ± 0.49 ^a
	1201 - 1600	44	2.97 ± 0.52 ^a
	≥ 1601	23	3.27 ± 0.43 ^b
	F-value (p-value)		2.42 (0.0483)*
Number of cooks	1 - 5	229	3.01 ± 0.48
	6 - 10	154	2.96 ± 0.52
	≥ 11	32	3.08 ± 0.44
	F-value (p-value)		0.98 (0.3767)

1) The alphabets mean the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comparison: a < b < c < d

2)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work performance and work satisfaction

	Work performance		Work satisfaction	
	Nutritional guidance	School foodservice	Nutritional guidance	School foodservice
Total satisfaction	0.213*** ¹⁾	0.183***	0.356***	0.340***

1)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7. Factors which influenced job satisfaction

		Parameter estimate			t-value	p-value
		B	SE	β		
	(Intercept)	1.76	0.19		9.49	0.0000
General characteristic	Marital status (Married)	0.01	0.05	0.01	0.13	0.8937
	Education	-0.06	0.02	-0.11	-2.61 *** ¹⁾	0.0094
	Salary	0.15	0.03	0.42	4.97 ***	0.0000
Status	Working areas (Daejeon)	0.06	0.05	0.06	1.32	0.1860
	Employment type (Nutrition teachers)	-0.07	0.08	-0.07	-0.83	0.4098
	Cooking form (Joint cooking)	0.07	0.05	0.06	1.37	0.1705
	Cooking form (Joint management)	0.09	0.11	0.04	0.86	0.3908
Work performance	Nutritional guidance	-0.07	0.04	-0.11	-1.85	0.0653
	School foodservice	-0.06	0.05	-0.07	-1.30	0.1948
Work satisfaction	Nutritional guidance	0.23	0.04	0.33	5.67 ***	0.0000
	School foodservice	0.20	0.04	0.26	4.81 ***	0.0000

F = 18.22*** / R² = 0.332 / adj. R² = 0.314

1) *: p < 0.05, **: p < 0.01, ***: p < 0.001

와 업무만족도에서는 업무수행도 보다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01). 영양지도 활동 영역(업무만족도) 0.356, 급식관리 영역(업무만족도) 0.340, 영양지도 활동 영역(업무수행도) 0.213, 급식관리 영역(업무수행도) 0.183 순으로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6).

7.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조사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아내고자 일반사항(연령, 결혼 여부, 학력, 경력, 급여, 근무시간), 근무현황(근무지역, 근무처, 고용형태, 급식형태, 급식 학생 수, 조리종사원 수), 업무수행도 및 업무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결혼 여부, 근무지역, 고용형태, 급식형태 등은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최종 학력, 급여, 영양지도 활동 및 급식관리 영역의 업무만족도는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즉 최종 학력이 높아지면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는 0.11만큼 낮아지고, 급여가 높아지면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도 0.42만큼 높아지며, 영양지도 활동의 업무만족도가 높아지면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도 0.33만큼 높아지고, 급식관리 영역의 업무만족도가 높아지면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도 0.26만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7).

고 찰

대전 · 충남지역 학교급식소 영양(교)사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연령을 조사하였을 때 가장 많은 연령으로 조사된 것은 36~40세(174명, 41.9%)였는데 반해,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Park(1999)과 Ko(2002)의 연구에서는 각기 26~30세(61.1%)와 31~38세(38.9%)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령대의 변천을 분석해보면 대전 · 충남지역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의 주요 연령대가 1999년도 26~30세(61.1%), 2002년도 31~38세(38.9%), 2009년도 36~40세(41.9%)로 점차 높아졌으며 이는 학교급식이 실시된 근 20년 동안 학교급식소 영양(교)사란 직업이 점차적으로 잘 정착되어 영양(교)사들의 연령이 증가함은 물론 이직률이 낮아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최종 학력을 살펴보면, 대학원(제학)이상이 3.8%(Park 1999), 3.4%(Ko 2002)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던 중전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175명(42.2%)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영양교사제의 실시로 교직의 이수를 위해 학교급식소 영양(교)사들의 대학원 진학이 증가함에 따른 현상이었다.

학교급식소 영양(교)사들의 직무만족도를 일반사항에 따라 분석 하였을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자인 경우, 근무경력 길수록, 급여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충북 및 대전·충남(Park 1999), 대구(Hwang 2005), 경남(Sung 2008), 전북(An 2008)에서 실시된 연구들과는 유사한 결과였다. 한편 연령이 적을수록, 미혼자인 경우, 근무경력이 짧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경기도 일부 지역의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8)도 있었는데 이는 직위의 불안정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도를 고용형태에 따라서 분석 하였을 때 정규직 영양교사(3.14)의 직무만족도가 비정규직 영양사(2.82)의 직무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겠다. 고용형태가 직무만족도를 높인다는 사실은 Sung (2008)의 연구에서도 조사되어 정규직 영양교사가 비정규직 영양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므로 학교급식소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영양교사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직무만족도를 학력에 따라서 분석 하였을 때 대학원(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영양(교)사들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들의 직위가 현재 비정규직 영양사이거나 또는 영양교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대학원에 재학중으로 업무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과중한 책무로 직무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직무만족도를 근무 지역과 학교 급에 따라 조사 하였을 때 대전과 충남의 영양(교)사들 간에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반해 학교 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3.05), 고등학교(2.98), 중학교(2.84)의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낮아졌다. 이는 2002년 같은 지역에서 실시된 Ko(2002)의 연구결과와 비교 하였을 때 지역에 따른 결과와는 같은 결과를, 학교 급에 따른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2002년도의 중·고등학교의 영양사의 수와 비교하여 본 연구가 실시된 2009년 현재의 중·고등학교의 영양(교)사의 비율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여 조사대상자의 구성 비율에서의 차이로 인한 결과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중·고등학교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가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보다 낮았던 점에 관해서는 중·고등학교 영양(교)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전·충남지역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는 2.99의 보통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경기(Lee 2007) 일부 학교 영양사들(2.91)과 경기도(Lee 2008)의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들(2.66)의 직무만족도 보다는 높은 편이었으나, 서울지역(Hwang 2009)의 초등학교 영양교사들(3.15)의 만족도 보다는 낮았고 정규직, 비정규직 학교급식 영양사들을 통합해 조사한 Sung(2008)의 연구결과(3.03)와는 비슷한 수준의 직무만족도를 나타냈다.

업무수행도와 직무만족도 및 업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을 때 업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 간에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업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양지도 활동영역과 급식관리 영역의 업무만족도(각기 0.356, 0.340) 및 업무수행도(각기 0.213, 0.183)가 직무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두 영역 모두에서 업무수행도 보다는 업무만족도가 직무만족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영양지도 및 급식관리 활동 영역에서의 업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학교급식소 영양(교)사의 전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학교급식소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는 최종 학력과 급여, 영양지도 및 급식관리 영역의 업무만족도로서 학력은 음의 상관관계를 그 외 세 요인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특히 영양지도 영역의 업무만족도의 상관도가 가장 높았고 급여, 급식관리 영역의 업무만족도의 상관도가 그 뒤를 이었다. 이것은 즉 학교급식소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영양지도 영역의 업무만족도가 높을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급식관리 영역의 업무만족도가 높을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직무만족도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분석된 원인으로 학교급식 영양(교)사들이 영양교사(2급) 취득을 위한 학위과정 수행으로 학업과 업무의 병행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로 인해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같은 지역에서 1999년 실시된 Han의 연구에서는 급식 수, 전근 학교 수, 조리사 자격증 유무, 겸직 유무 등의 요인들이 초등학교 영양사들의 직무만족 및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으나, 2008년 경남지역에서 실시된 Sung의 연구에서는 업무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도가 학교급식 영양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어, 동일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학교급식의 정착되었던 10년 전과 비교하여 학교급식이 여러 형태로 정착되고 또 영양사의 직위가 향상된 현재 학교급식소 영양사의 직무 및 직위 환경에서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학교급식 영양사의 고유직무 및 권한부분의 요인들로 변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따라서 미래 한국의 학교급식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영양교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3년 영양교사제가 법제화 된 이후 대전·충남지역 학교급식소의 일반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직무 환경의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는 평균 2.99(±0.49)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업무수행도 면에서 급식관리의 만족도(4.33)가 영양지도의 만족도(2.94) 보다 훨씬 높아 영양(교)사의 업무가 급식관리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업무수행도가 높으면 업무만족도 또한 높은 경향을 보인 하였으나 높은 업무수행도에 비해 업무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경향을 나타내 하는 일에 비해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냈다.

3.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혼자일수록, 근무경력이 길수록, 급여가 높을수록 높은 편이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는 대학원(재학)이상의 학력에서는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4. 근무처와 직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중학교가 가장 낮았으며 정규직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비정규직 영양사의 경우보다 높았다.

5. 급식형태에 따라서는 공동관리고, 공동조리교, 단독조리교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았으며 급식 학생 수가 800명 이하로 적거나 1200명 이상으로 많은 경우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근무지역, 종사원 수에 따라서는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 직무만족도와외 상관관계에서 영양지도 활동 영역(업무만족도), 급식관리 영역(업무만족도), 영양지도 활동 영역(업무수행도), 급식관리 영역(업무수행도)의 순으로 직무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7. 높은 급여와 업무만족도(영양지도 활동 영역, 급식관리 영역)는 영양(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높은 학력은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었다.

영양교사제가 시행됨으로써 급식만을 제공하던 학교급식소 영양사에게 미미하게 수행되던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의 업무가 더욱 증대 되었지만 본 연구결과, 조사대상 학교급식

양(교)사들의 영양지도 활동 영역에서의 수행도와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영양지도 활동 영역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영양지도 활동 영역 뿐 아니라 영양(교)사 업무 전반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학교급식소의 정규직 영양교사에 비해 비정규직 영양사의 직무만족도가 낮으므로 영양교사의 임용을 확대하고 영양사의 정규직 비율을 상승시켜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참고 문헌

An BY (2008): A study on job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of nutrition teacher in Jeon-buk provinc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Bae IS (2004): Dietitian's duties and roles described for dietetics teacher working at school lunch servic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Cha MH, Seo SH (2006): Comparison analysis of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job satisfaction, work value, and turnover intention based on the expectation to be a nutrition teacher. *Korean J Community Nutr* 11(3): 361-3

Choo YJ, Lee JH, Yoon JH, Ryu SH (2005): Relationship between levels of dietitians' management activities and job satisfaction in elementary school foodservice operations. *Korean J Community Nutr* 10(4): 546-554

Han JI, Park MS, Kim SA(1999): Job satisfac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by their foodservice type. *Korean J Dietary Culture* 14(3): 233-239

Hwang HJ (2005): Job satisfaction and stress of dietitians: dietitians of elementary schools in Daegu city.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 Public Health Studies, Yeungnam University

Hwang SH (2009): Job satisfaction of nutrition teacher in elementary school in Seoul.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Jang MR, Kim MH (2003): Job satisfaction of dietitians between elementary school and high school. *J Korean Diet Assoc* 9(1): 13-21

Jeong SY (2007): A survey on the job satisfaction of dietitians in school foodservic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yongji University

Kim DW (2006): A study on job analysis and job satisfaction of school dietitians in Jeon-buk provinc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im HK (2007): Job analysis and satisfaction of dietitian in school foodservice for job efficiency: focused on Gwangju and Jeonnam areas.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am University

Ko HS (2002): The study on job satisfaction of dietitians in school foodservices(focus on Daejeon and Chungnam of dietitians in school foodservices). MS thesis, Industrial Graduate School,

- Kongju National University
- Koo NS, Park JY, Park CI (1999): Study on foodservice management of dietitian in the elementary school in Taejon and Chung Nam. *J Korean Diet Assoc* 5(2): 117-127
- Lee EJ (2007): Preliminary nutrition teacher's recognition and attitudes towards nutritional education.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angji University
- Lee JS (2002): Originals: Assessment of job satisfaction of dietitian in primary school and high school. *Korean J Food & Nutr* 15(3): 220-227
- Lee KY (2008): A research on the job satisfaction of dietetic teachers and their perception of their job.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 Lee MJ, Jang MS, Lee JM (2008): Analysis of recognized changes in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by dietitians transposed to nutrition teachers in Gyeonggi province. *J Korean Diet Assoc* 14(3): 243-258
- Lee MN (2008): A study on working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of contingent dietitians in school foodservice in Kyonggi-do Whasoung and Suwon area.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 Lee YJ (2007): The study for efficient operating of nutrition teacher system in school foodservic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 Moon HK, Joung HJ, Cho JS (1996): Relationship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job satisfaction of the Korean dietitian. *J Korean Diet Assoc* 2(2): 181-198
- Park EJ (1999): Job achievement and job satisfaction of dietitian in elementary school. MS thesis, Graduate School, Chung buk National University
- Park MH (2008):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of nutrition teachers in Gwangju/Jeonnam province.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Shin EK, Lee MJ, Lee YK (1999): The effect of job characteristics and work value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the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Korean J Community Nutr* 4(3): 441-453
- Sung KH (2008):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between regularly and irregularly employed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 based in select areas of Gyeongsangnam-do. M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 Yang IS, Ham SO (1993): Job satisfaction and its relationship to job characteristics of school foodservice dietitians. *Korean J Food Culture* 8(1):11-19